

建築創作의 活性化와 建築家의 使命

本稿는 지난 6월23일 建築士協會 및 建築學會 後援으로 建築家協會가 主擧한 建築討論會에서 發表된 論文中 제 1, 2, 3主 題文을 于先 掲載하는 것이며, 제 4主 題는 다음 7월호에서 다루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建築創作活動의 現實

金 重 業

건축은 인간이 지표면상에 생존을 강력히 주장한 아릿한 시점으로부터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들에게 꾸준히 바쳐진 벽찬 감동의 연속이었다.

『라스코우』의 동굴속에 그려진 달리고 있는 또렷한 소들의 박력있는 「이미지」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보다 안전한 그려면서도 쾌적하지는 못한 동굴속의 생활일망정 외계에 펼쳐지는 낮익은 그러나 싸워 이겨야 하는 식용동물들의 그들나름대로생생한 파악이 둥근 3차원의 공간에 찬연히 재현됨으로 하여 더욱 축제적인 분위기를 돋구어 뜨거운 감동속에 씨족들의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어 언젠가 이루어지고야말 보다 나은 지상생활에의 벽찬 꿈을 위한 내일의 승리에의 찬가였음이 틀림없고 먼 훗날의 현대인들에게까지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하여 가슴뿌듯한 감동속에 사로잡는다.

지상에 세워진 거석군의 하나인 『스톤·헨지』의 기하학적이며 논리적인 축제용 구축물에서는 길고 벽차고 어두웠던 동굴생활에서 드디어 벗어난 인간생존의 지상에의 자신있는 뿌듯한 진출을 뜨거운 몸짓으로 하여 꾸준히 인간들에게 당시의 감동을 다시금 새롭게 되새기게 한다.

큰 돌들을 차곡히 지상에 세우다 더욱 크고 웅장한 건축을 위하여 『우르』의 「지그라트」와 같이 인공의 태양의 언덕을 평야위에 흠뻑물로 차곡히 쌓아올려 『메소포타미아』의 찬연한 인간개가를 드높이 부른다.

『나일』강변의 끝없는 사막위에 영구한 삶을 위해 「피라밋」군들이 세워지고 이를 지킬 거대한 사원들이 『에집트』문명의 또한 뜨거운 태양밑의 이그러져간 수많은 인간들에 바쳐진 에레지를 불러 우리들의 심혼에 절묘한 감동의 불꽃을 튀긴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언덕위에 질서의 왕인양 우뚝 솟은 「휘디아스」의 손길이 더없이 아름다운 「파르테논」을 빚어 인간들에게 꾸준한 교훈을 남겨 서구문명의 원조로서의 「그리스」문화의 정화가 수없는 찾는이들을 감동의 도가니속에 사로잡는다.

『안테스』산맥의 높은 봉우리를 온통 인간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 바꿔 구름과 바람과 그 많은 이야기들이 흠뻑 담긴 「마쉴·핏쉴」의 집념어린 계단식 도시가 잉카문명의 황홀하고 웅장한 가락을 불어 찾는이에게 다시 잊을수 없는 추억을 심는다.

『유카탄』반도의 「테노크·티트란」의 인공대지위에 거창히 펼쳐지는 「아즈텍」문화의 놀라운 건축기법들이 우주정복의 꿈까지 뚜렷히 예언하여 인간에게 미래의 장까지 펼쳐보이면 그 누가 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인간의 꾸밈없는 정열과 미래에의 뜨거운 지향이 정글속에 거대히 수놓은 「앙콜·왓트」 「앙콜·툼」 그리고 「바라브틀」의 신비스럽고 피이스럽기조차한 성전들의 다혈질인 조형에서 인간들이 그 얼마나 감동속에 자신들의 뚜렷한 자국들을 수없이 지표면상에 남기려 했는가를 또한 어찌 뜨거운 감동없이 누가 이야기 하랴.

아프리카대륙의 「짐바부예」의 둥근 성곽들이 신생아프리카의 심볼역을 담당할 지 오래며 「튀준」의 극치탈 수 있는 『알함브라』의 오묘한 육감적인 조형들이 아랍국가의 거대한 꿈을 대변하며, 애처러운 이야기를 깊이 간직한 「타지·마홀」의 황홀한 균제미는 이슬람과 힌두와의 혼혈이 청소의 꽃피운 요염함이며, 동양의 자연과의 오묘한 합작속에 지극한 화음을 하늘위로 내닫는 북경의 「천단」,

조용히 속으로만 불붙은채 소복히 단장한 「종묘」의 절묘한 분위기들이 인간에게 더욱 더 뜨거운 삶에의 의욕을 북돋아 왔다.

세계대륙의 도처에 인간의 감동을 수놓은 멋진 작품들이 세워지고 지워지고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이어져 간다.

동·서양의 건축창조에의 뜨거운 입김은 장소와 시간 위에 향시 새롭게 펼쳐진다.

그러기에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 불리워진다. 인간이란 향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오기에 되풀이할 수도 벗어설수도 없이 때로는 크라식하게 때로는 로맨틱하게 인간의 끝없는 전진의 자세로 하여 변해왔다.

그러므로 건축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의 역할과 인간의 끊임없는 보다나은 환경에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감동을 베풀어 왔다.

「아키텍처」라는 말은 라틴어의 큰 기술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되어 크다는 것은 위대한것 곧 예술을 뜻하여 첨단을 걷는 기술을 구사하여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건축임을 말해준다.

그러기에 예술사의 가장 중요한 장을 장식하고 있는 건축은 또한 기술사에도 적지않은 업적을 남기고 있어 건축이란 예술과 기술에 양다리를 흠뻑 걸치고 있어 때로는 예술적인 가치가 더욱 강조되는가 하면 때로는 기술적인 발전에 더욱 각광이 비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건축의 2면성은 기능과 조형과의 완전일치를 꾸준히 요청받아 왔으며 이 어려운 문제에 정확한 답을 푼 이들만이 건축가라는 칭호를 받아왔다.

그러기에 건축가는 천직이라고 받아들여져 왔으며 냉철한 지성을 지님과 동시에 뜨거운 감성을 지닌 건축가상이 요망되어 왔다.

자신의 예술과 기술에의 끊임없는 정진위에 가장 객관적인 인간분석의 쌓아올림이 비로서 참다운 건축작품을 창조해 왔다. 그러므로 자신을 끝까지 연소시켜 무엇인가를 이 땅위에 남기려는 굳은 집념어린 안간힘을 쏟는자가 즉 건축가이다.

건축가의 모든 문제는 그 자신이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건축관은 작업의 방향과 공간에 대한 개성을 형성하는데 이는 외부의 요인과 자신속에 축적되어 있는 내적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건축작품은 모두들 개성과 경륜이 다름과 같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장소와 시간속에 각기다른 회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축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나 그 그릇을 창조하는 건축가의 내외적인 차이에 의하여 엄청나게 달라진다.

건축가도 인간이기에 그 인간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 건축가도 탄 창조작업을 하는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종생토록 자화상을 그리고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자기를 제대로 그린다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지만 남을 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기에 향시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근본요소가 된다.

여기에 인간을 어떻게 명확히 파악할 것이며 인간이 모인 사회의 속성이란 무엇인가의 뚜렷한 자기자신의 해석이 가장 중요해 진다.

그러기에 건축가의 역사관이며 세계관이며인생관이 크게 문제시된다.

건축의 기능과 아름다움은 모두 생활이라는 모태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좋은 건축을 위하여는 이 생활의 인간속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지나치리라만큼 예민한 감정과 더불어 이제까지 축적되어진 기술과 전통을 파악한 뚜렷한 지성이 필요하다. 이는 건축가의 필수적인 자질인 동시에 한시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목표이다. 건축은 보다나은 공간을 갖고싶다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계속 변하여 왔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공법과 자재 공간파악의 개념도 발전하였고 시대에 따라 꾸밈없이 형태도 달라져 왔다. 어제까지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건축언어이어서 이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오늘에 살리느냐가 또한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언어를 창조하는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건축가에게 실재없이 오늘의 문제와어제까지의 전통이 지닌 근본조건에 새로운 조명이 비치는 작업이 그의 꾸준한 연륜과 더불어 보다 성숙한 작업에의 도움을 준다.

건축가는 이처럼 어제도 내일도 아닌 자신이 딛고 있는 오늘밖에는 그릴 수가 없다. 그 시대와 자신을 가장 진지하고 적나라하게 지어낸 것만이 그 감동을 흐르는 시간과 관계없이 이어준다.

이런 까닭에 건축은 운명적이다.

지구상의 특정한 지점에 오늘 어떠한 요구에 의하여 한 점을 찍는다. 그 한점의 해석은 여러개일 수는 없다. 가장 나은 하나의 해석에 도달하기 위하여 건축가는 자신이 갖고있는 모든 조형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자신의 언어란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지식도 체험도 감정도 이에 속한다. 풍부한 자기언어를 구사하기 위하여서 진지하게 정진하는 것과 또한 자신이 쌓아올린 지혜가 필요하다. 갑작스런 발상이 아닌 꿈틀되어진 결실이어야 한다. 이 연륜에 맺인 결실만이 대중을 이끄는 설득을 가능하게 한다.

대중을 설득하여 이끌어나가는 것은 문화의 역사다.

사회에 이끌려가는 것은 이미 건축가가 아니다.

설득이란 진지하고 자기자신에 충실할 때만 가능하다.

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존」이, 정확히 내려진 현실 파악이 동시에 필요하기에 건축가란 항시 「선」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자기에게 충실해야 한다.

건축물은 완성되어지는 순간부터 작가를 떠나버린다. 자신이 남긴 결과가 작가의 것만이 아닌 사회속으로 환원되어 진다. 그후 건축가에게 책임과 비판이 남는다. 이 사회와 끊을 수 없는 연관때문에 건축가는 대중앞에 벗고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건축을 지어 사회에 바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회를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연관을 지닌다.

이끌어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오리지널 할때만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에 보다 나은 질서를 심을 수 있는 강한 책임감이 뒤따라야 마련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건축가들은 뚜렷이 시대를 이끌어 왔고 또한 그러한 이들의 작품만이 시간의 흐름속에 확실한 모습을 남겨 인간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던져줌으로 하여 삶에의 보다 나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건축가 자신이 그러한 진지하고 근원적인 노력을 포기할때 설득이 아닌 현혹과 눈가림밖에 할 수 없으며 이는 자신의 타락을 뜻할뿐만이 아니라 건축가의 직능에까지 큰 해독을 끼치며 후세에까지 조롱거리가 되어 그의 작업은 머지않아 깨끗이 지워지게 마련이다.

사회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 뚜렷한 개성을 지닌 그 분야의 뛰어난 작가들이 보다 나은 공간창조를 위해 충실하게 작업하는 것이다.

많은 뛰어난 건축가들은 작가의 「아프리에」에서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건축창조에 몰두하였다. 이 「아프리에」식의 작업방법은 각자 개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보다 나은 공간구성이란 대 명제에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에 있어서도 세계를 주도하는 건축가들이 그의 「아프리에」에서 가장 개성있고 충실한 작품들을 만들어 인간에게 뜨거운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건축창조의 이상은 「아프리에」에서 알뜰하고 시대를 밀어갈 수 있는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 두손모아 사회에 바치는 작업이다.

그러나 전후 거대한 프로젝트의 출현에 따라 대형 설계 사무소들이 수준작들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재료 정보의 대형화로 인하여 대량의 인원과 재원을 동원하여 큰 프로젝트를 신속히 또한 무난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굳이 말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사무소도 소수의 우수한 디자이너 없이는 수준작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이는 자명한이치로서 건축창작 활동이 단지 「엔지니어링」만일 수는 없기 까닭이다.

「용」은 「미」를 겸할때 비로서 사회에 공헌하게 됨은 철칙이다.

그러기에 대형 건축사무소에 있어서도 유능한 건축가와 의 협동이 절실히 요청되어 오리지널하고 작가체질에 철저한 「아프리에」와의 공동설계가 여러나라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바람직한 경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건축이란 어디까지나 그 자체에 많은 표정과 이야기들이 이어져나와야 하는 까닭이며 이는 유능한 건축가만이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엄청나게 비문화적인 환경을 무비판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자책을 금할 수가 없다. 밀고간 것이 아니라 밀려간 것에 지나지 않으니 말이다.

무표정한 콘크리트담속에 억지로 갇혀 사는 착한 인간들이 너무나도 처절하지 않는가.

숨막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건축가 부재를 여실히 부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첫째 건축가 자신의 책임이다.

어떠한 그럴싸한 변명도 역사앞에는 있을 수도 통할 수도 없고 남겨진 현상만이 냉철한 역사적 비판앞에 놓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건축가의 창조작업이란 엄청난 정진과 꾸준한 전진이 요청된다.

건축이란 어디까지나 그 자체에 많은 표정과 이야기들이 이어져 사회에게 보다 밝고 값진 환경을 조성해야하므로 이는 오리지널하고 진지한 창조적인 작업을 건축가에게 강경히 요청한다.

그러므로 건축가에게는 자신이 축적한 온갖 지성과 감성을 태워 새롭고 값진 환경구미에 전력해야 하기에 자신의 끊임없는 인격의 향상이란 대명제앞에 직면하게 되고 냉철한 역사앞에 숙연히 머리숙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사회와 문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건축가의 어깨에 걸린다.

사회와 역사와의 연관은 오로지 건축가만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 이는 곧 행정과 직결된다.

어느나라에서나 건축행정은 보다 나은 건축을 지을 수 여건을 형성해 주고 불량건축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지켜주고 있다. 좋은 건축은 행정의 참다운 뒷받침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건축은 그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행위여야 한다. 어느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문화를 내세울 때 각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꼽는다. 그러므로 좋은 건축은 그행정의 얼굴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환경에 직결되는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하여는 앞을 뚜렷이 내다본 「비존」에 의하여 법이 개정되고 이 법이란 어디까지나 보다 좋은 건축창조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이란 쉽게 정할 수도 수시로 바꿀 수도 없는 성질을 띠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 모순을 내포하고 집행에 있어 여러 좋지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예를 들자면 건축창작의 올바른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수의 창작활동을 교육공무원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실은 건축「디자인」을 가르킬 교수의 존재가치마저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자질향상의 길마저 막고 있어 축적되어야 하는 실제의 경륜없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창작의 감동과 실제의 건축언어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

기술사 시험을 위한 예비학교 구실밖에 못하는 현대학 제도는 건축교육면에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더우기 이들 무경험한 교수들이 담당하는 미관심의 원회의 발상은 건축의 질의 향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고 있어 자칫하면 이는 건축문화 내지는 환경조성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의 시정을 위하여 외국과 같은 수준의 건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적이 뛰어난 건축가들에게 학원을 되 돌려 주고 학도들에게 깊은 감동위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작업을 보다 구체적인 「비존」을 심어 내일의 밝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도적인 건축가의 양성이 바람직하며 자동적으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건축창조의 길을 터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건축사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바람직한 것은 「라이센스」란 일정한 능력에 도달하면 쉽게 얻어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의 작업은 건축가 자신의 책임에 맡겨야 한다.

「라이센스」가 있건 없건 「크라이언트」는 능력있는 건축가를 찾는게 현실이다. 이는 건축사의 자질향상이 더욱 중요하지, 수의 다과와는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건축사 시험」도 상식에 속하는 범위내에서 쉽게 치러져야 하고 사회에 있어서는 선의의 자유경쟁에 맡겨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건축창작활동하는 장소의 제한도 건축가 자신이 편하고 분에 맞는 곳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주택내지는 아파트에서 창작하는 예는 동서를 막론하고 허다하다.

「르·플뤼제」는 교회의 복도를 막아 「아프리에」로 쓰고 현세기에 길이 남을 주옥같은 작품들을 수없이 남겼으며 「알빌·알토」도 헬싱키교외의 자기집의 「아프리에」에서 복구의 거장으로서 전세계의 건축계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에로·사리넨」도 쉐트루이스교외의 농장주택에 백여 명의 유능한 제자들을 이끌고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었으며, 「흐랑크·로이드·라이트」도 타릭어센의 주티에서 전 세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작품들을 수없이 남긴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들이다.

건축창작활동이 「아프리에」에서 이루어짐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건축창작의 길이 문제가 되어야지 행위하는 곳

의 제한이란 참뜻으로서의 건축가에게는 오로지 해로를 따름이다. 건축이란 부단의 사색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조용하고 채워어린 공간이 바람직하다.

인간생활과 관계되는 만큼 건축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도시계획도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집을 설계하는 사람도 모두 건축의 울타리안에 있다. 사람의 복지를 위한 일인만큼 건축가 자신의 자질이 국민 주거의 수준을 결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이런 건축가들의 전문성과 지성을 정당히 인정하여 주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의 주거환경도 월등히 향상될 것이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도 창작작업에 머뭇거리고 있는 후진들도 이런 전문의식이 확립될 때는 보다 자신있게 이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건 사회에 지침을 만들 때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령 건축사 수를 제한 하고 작업실을 오피스거리로 옮기고 몇 명의 건축사를 한곳에 옮겨놓는 것이 보다나은 공간을 창조해야 하는 건축 원래의 목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개성이 다른 사람끼리 타인의 작품에 관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안전과 건실한 건축자체를 위해서 또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와 법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창작의지를 꺾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보안하고 보호하는 여건이 필요하다.

건축가 스스로가 먼 안목을 갖고 자신을 정진해 가야 하듯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도시계획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가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일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떠한 계획이든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문가의 연구를 참고로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충분한 고려로 먼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비존」이 세워질 때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을 때는 오늘 잘한것 같은 일이 얼마못가 시행착오로 변해버린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건축부문의 오판은 커다란 재정적 손실을 동반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거생활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편을 겪게되어 사회불안의 암으로 등장한다. 환경과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은 모두 인간생활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일원화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적어도 건축부 내지는 환경청의 설치가 시급해진다.

이곳에서는 한국인에 알맞는 주거론도 확립되어야 하고 우리 실정에 적절한 도시계획도 수립하여야 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꾸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집을 지어가는

실로 철학에 맞는 원칙확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가들의 높은 창의력을 강력히 뒤밀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축가는 사회를 밀고 나가는 「비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비존」을 잃은 사람을 건축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먼저 건축가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비존」을 쟁취하여야 하며 상호협력을 위한 굳은 선의의 단결이 요청되며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의의 파워가 요청된다.

이를 행정에서도 밀어 올려 후세에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감동적인 새로운 장이 하루속히 출범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요망하고 있기에 건축가들에게 짙어진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앞날은 엄청나게 험준하다.

그러기에 건축가의 올바른 상을 스스로가 찾고 건축가와 사회인과 관과의 뜨겁고 진지한 협력태세가 오늘 절실히 요청된다. 내일이면 너무나도 늦어 한국 건축문화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오늘이 중요하고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작업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設計事務所運營上の 当面問題

金 枝 泰

우리나라의 建築文化의 一翼을 담당하고 또한 自負하며 建築創作活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고있는 建築家들이 그 業務에 負課된 使命感과 姿勢에서 얻는 結果에 對하여 虛와 實이 어떤것인가를 實感했을때 마치 明滅하는 燈과 같이 錯雜한 心情과 함께 現在에 어느位置에 와있는가를 짐작케 될 것이다. 理由는 무엇일까? 우리 建築家들의 自覺과 協同精神의 不足으로 自招한 것인가 아니면 現建築行政 및 政策의 制度上의 不備로 因하여 생긴 現象인가, 또는 一般大衆들의 建築創作에 關한 理解不足으로 活動舞台를 잃고 있는 것인가, 左右間 우리 建築家들로서는 한번 쯤 思考해 봐야 할 如地에 있는 것이다. 보다 밝은 來日을 위하여 水準높은 創作活動과 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本然의 業務에 誠實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組織體를 再整備하는 一便 돌고있는 軌道의 修正이 不可避한 時點에 와있다고 본다.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 設計事務所의 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이를 運營하고 있는 建築家(法的用語 해석으로 登錄開業한 建築家를 建築士로 稱함)에 있어 現在 當面하고 있는 諸般問題中에서 가장 切實하고도 早速한 解決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問題들로서 果然 어떤것들이 있는지 이를 露呈시켜 이에 對한 忌彈없는 意見交換과 對話를 通해서 問題解決의 지름길이 摸索되었으면 한다.

1. 設計事務所의 實態(概括的인 面에서)

組織體制側面에서 建築創作的인 部門과 建築技術的인 部門을 그 業務의 基本으로 하고 있는 建築設計業務가 우리나라에 定着한것은 歷史적으로 짧다고 보며 하나의 組織形態로서 社會的인 認知를 받게 된것은 아마도 1963年の 建築士法公布以後이며 當時의 建築家들에게 社會的으로 多少간에 待遇를 받을 수 있는 重要한 契期라 할 수 있고

그後 많은 試鍊을 겪어가면서 오늘과 같은 樣相의 組織體制로 成長變貌하였으나 社會發展度에 比하면 內容에서의 落後性은 免치못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의 設計事務所의 組織形態를 企業形式으로 区分하면 法人體制(株式會社)와 個人形態이며 이중 85%以上이 1人經營體制方式을 扞하고 있다. 從業員數도 資料에 依한바 設計事務所 全體數에 比하여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名 以上の 組織規模의 큰 事務所를 비롯하여 그中間規模로서 10~20名정도 小規模로서 5~7名 정도이고 이밖에 4人未滿의 事務所도 相當히 높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斷面에서 一般企業과는 比較될 수 없지만 組織規模의 零細性을 脫皮하지 못한 實情이며 經營形態도 1人體制를 쉽게 탈바꿈할 수 없는 要因이 尙今도 潛在하고 있을뿐만